

골유도재생술 시 비흡수성 차폐막의 노출에 관한 임상증례

최승민

강릉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

연구 배경

골유도재생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치유기간동안 차폐막이 구강환경에 노출되지 않고 제자리에서 기능을 다해야 한다. 차폐막이 노출되어 감염이 일어나고 충분한 치유기간을 갖지 못한 채 제거하게 되면 재생되는 골량이 감소하게 된다.

본 증례에서는 차폐막이 노출된 경우 막 제거 후 차폐막의 하방 조직 상태를 임상적으로 관찰하였고 식립시와 막 제거 후 방사선사진을 비교하였으며 이를 보고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및 재료

임플란트 식립과 동시에 deproteinized bovine bone과 비흡수성 차폐막을 사용한 골유도 재생술을 시행한 후 치유기간 중 차폐막이 노출된 다섯 증례를 임상적, 방사선학적으로 관찰하였다.

연구 결과

차폐막 노출 후 막 제거 시 임상적 관찰에서 염증소견 지속 기간이 길수록 차폐막 하부 조직은 단단한 신생조직보다는 붉은색을 띠는 연약한 조직으로 형성되었다. 방사선학적 관찰에서도 염증 소견 발생 후 막 제거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식립 직후와 막 제거 후에 임플란트 주위의 골정에 방사선투과성의 증가를 관찰할 수 있었다.

결론

임플란트 수복 시 비흡수성 차폐막을 사용한 추가적인 골유도재생술이 예지성 높은 치료임은 명백하다. 하지만 막이 노출되고 시술 부위가 감염되면 충분한 골재생을 기대할 수 없다. 적절한 수술 기법과 환자관리로 막 노출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으나 일단 막이 노출되면 환자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관찰하여 감염을 방지하고 감염이 발생하면 즉시 막을 제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